

# 與 “패트 수사 총선 후보등록 전 끝내야”

(12월 17일)

### 민주·한국당 檢 수사 놓고 공방...민주 “역사의 심판 받을 범죄” 한국당 “법안 내용 저지 불가피...선거법 개정안도 문제 많다”

여야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독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강도 높게 공세를 펼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 이었고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지가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주장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면서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

화법의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정적 위 수사부의장도 “불법적 국회 폭력 점거와 바른미래당 체이배 의원 감금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내년 4·15 총선의 예비 후보등록이 시작(12월 17일)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는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 민주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요한 안

보 이슈를 부각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배치된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의 불복합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 법안 등의 지지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저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끝자락 한 선거법 모두 내용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독과 관련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

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에당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직 총사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강제 복송으로 규정하고 대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에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자당 간사로 구성된 ‘북한 주민 강제소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통일부, 외교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3당 “민생 입법으로 중소기업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유용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檢 직접수사 축소·장관에 수사 보고 신속 추진을”

### 검찰개혁 점검회의...“개혁의 고삐 늦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 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합과 같다. 둘 이길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빈 의원은 “법무부의 탐찰통합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

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규정 확대된 검찰청 직점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민주, 총선 후보 검증위 설치

### 총선기획단 젠더폭력·혐오 발언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기본 자질·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오는 17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향후 총선 관련 기구 구성 계획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검증위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절반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혐오·젠더폭력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 관련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TF는 2030 청년 50%와 여성 50%로 구성해 젊은층과 여성의 시선으로 젠더 폭력이나 혐오 발언(전력)이 있는지 검증한 뒤 검증위로 (심사내용)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17일까지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의 50%를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6일까지는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절반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내년 2월 15일까지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선거제도 논의 위해 (설치 시기를) 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21대 총선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은 검증위의 자격심사와 예비후보 등록 등을 마친 뒤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교육 ▲교양 ▲전문교육으로 나뉜다. 기본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양 부문에서는 품격있는 정치언어 구사법,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 배려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안신당,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

### 10명 활동...범 여권, 우군 확보시 의결정족수 충족

대안신당이 내달 초 막이 오를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캐스팅보터’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표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0표를 가진 대안신당에 정지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는 대안신당은 신당의 명운을 걸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몹값’을 한껏 높이겠다고 버티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재적 과반(296명 중 149표)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인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부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128석)은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親) 민주당 성향 무소속 5석(문화상 국회의원, 김경진·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40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총 150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이나 민주평화당의 조력 없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은 이런 상황을 창당 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고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뒤 곧바로 여세를 몰아 창당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패스트트랙 협조’를 지렛대 삼아 선거법 개정안 내용 수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7석기량의 호남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은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도 “농어촌 의석 사수”를 천명하며 패스트트랙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방침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정국을 이끄는 ‘리딩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며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  
홍익인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